

유미리 소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에 나타난 타자성*

-공간과 기억 이론에 기초하여-

박은희** · 필교교***

〈차 례〉

1. 들어가며
2. 공간 서사: 이동과 추방
3. 기억의 재구성: 상기와 치유
4. 나오며

[국문초록]

2020년 제71회 미국 ‘내셔널 북 어워드’ 번역문학 부문 수상작으로 유미리의 장편소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가 선정되었다. 소설은 유미리가 일본사회의 하층민과 이주민 등 소외된 자들의 관점에서 도쿄 우에노 지역을 바라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유미리의 작가적 정체성을 보면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면 오히려 탈구축의 시각을 보유한 소설가로 인정된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빈부격차와 고령화 사회의 암흑면을 보여준다. 특히 소설은 일본의 경제성장기를 이루어낸 한 세대가 노년에 이르러 빈곤, 노숙, 파산, 자살 등 불행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담담히 그려냄으로써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겼다.

본고는 헤이세이 시대 일본 문학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에 나타난 타자성에 주목하면서 공간 서사와 기억의 재구성, 두 측면으로부터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민족과 국적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마주한 보편적 차원의 고뇌와 불안에 대한 이야기, 이는 이 소설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금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짐작된다.

[주제어] 유미리,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 공간 이론, 기억 이론, 타자성

* 이 논문은 2016년도 태산학자 프로젝트 연구경비(《泰山学者工程专项经费资助》)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朴银姬, 중국 魯東大學文學院 교수/연변대학 조한문학원 교수

*** 毕娇娇, 중국 魯東大學文學院 석사연구생

1. 들어가며

20세기 90년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은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의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혼돈이 시작된 시대로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방향, 여성 작가의 활약,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 소설의 유행 등이 문학적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위기,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유행한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용어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고 빈곤, 전쟁, 테러, 죽음 등이 이 시대의 문학 경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작용하였다. 2010년대,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일본 문단은 디스토피아 소설이 융성한다. 또한 노동환경의 악화로 인해 과로사가 늘어나고 안전보장 정책이 흔들리면서 재해, 질병, 실업, 가난 등 현실의 가혹함을 그대로 투영하는 디스토피아 소설이 유행하게 된다. 헤이세이 시대 문학을 살펴보면 버블경제와 경기 침체, 불평등 사회의 심화, 대지진과 원전사고, 정권교체와 새로운 내셔널리즘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일본 사회의 전반 흐름을 다양한 문체의 텍스트를 통해 보여주었다. 헤이세이 시대는 일본 문학사 측면에서 보면 다이쇼(大正) 시대와 쇼와(昭和) 시대에 이어 재일한국인 작가가 일본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낸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회성, 이양지, 이기승, 유미리, 현월, 강신자, 최실 등 작가들이 연이어 아쿠다가와상(芥川賞), 나오키상(直木賞), 군상신인문학상(群像新人文學賞) 등을 수상하면서 일본 문단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본고는 헤이세이 시대 일본 문학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재일한국인 작가 유미리의 장편소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에 나타난 타자성에 주목하면서 공간 서사와 기억의 재구성, 두 측면으로부터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014년 일본에서 출판한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의 영문판 『Tokyo Ueno Station』는 2020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서상 가운데 하나인 ‘내셔널 북 어워드(National Book Award)’ 번역문학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

었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유미리 소설이 초기의 사소설(私小說) 형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풍경과 정치적 화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소설 속 공간은 서사의 배경이고 기억은 서사의 대상이다. 등장인물의 기억은 그들의 생존공간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동시에 모든 소설 속 공간에는 등장인물의 중첩된 기억이 투영된다. 공간과 기억 이론에 기초하여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다면 유미리 소설이 내재한 타자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미리는 1968년 일본 이바라키현(茨城县) 츠치우라시(土浦市)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작가이다. 유미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가출과 자살미수를 반복하였다. 열여섯 살 되는 해에는 학교를 퇴학하고 ‘도쿄 키드 브라더스’ 극단에 입단하면서 시나리오 창작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86년 극단 ‘청춘오월당’을 결성하여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하였다.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유미리의 초기 작품은 가족을 둘러싼 암울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차별, 폭력, 가출, 타락, 자살 등 비극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여 가족의 붕괴와 해체에 의한 절망감과 상실감을 여실히 그려냈다.

1988년 유미리는 희곡 『물속의 친구에게』를 발표하면서 일본 문단에 등장하였다. 1933년 희곡 『물고기의 제사』로 제37회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岸田国土戏曲奖)을 수상하였고 1996년 소설 『폴하우스』로 제24회 이즈미 교카 문학상(泉鏡花文学賞)과 제18회 노마 문예신인상(野間文芸新人賞)을 수상하였다. 1997년 소설 『가족 시네마』로 제116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문단에 자리매김하였다. 유미리의 소설은 이기승, 이회성, 이양지, 현월 등 대표적인 재일한국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디아스포라적인 정서가 아주 짙은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3월호 『문학계』에 실린 유미리와 츠지 히토나리(辻仁成)의 대담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재일이라는 사실을 부각한 소설은 쓰고 싶지 않았다. 흔히 ‘재일에 대해 써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내세움으로써 ‘재일’이라는 일반론에 포섭되는 것이 싫었다. 이는 개별적인 문제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거듭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입장에서 글을 쓰고 싶다'라고 강조한 것이다.¹⁾

유미리는 자신의 문학이 일본문학에도 한국문학에도 귀속되지 않는 '유미리 문학'으로 읽히는 것이 보다 폭 넓은 텍스트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라타니 고진은 저서 『세계공화국으로』(2006)에서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²⁾ 이는 기존의 근대적 민족국가를 뛰어넘어 세계공화국에 이르는 과정을 구상한 칸트의 사유에 공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극복을 근대 국민국가의 극복으로 이해하였다. 유미리 소설은 민족과 국가의 범주를 떠나서 차별과 가난으로 인해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한, 혹은 귀속될 수 없는 하층민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 소외된 자들의 삶을 글로써 대변하려고 하는 유미리, 따라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일본 사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가난하거나 비루하거나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 이는 일본 디스토피아문학의 흐름에 가담하는 유미리의 창작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를 읽으면서 작가 유미리에 대해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유미리가 소설 창작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성은 무엇인가.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유미리가 원하는 진정한 인간성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인간의 특수성을 나타내는데 있다고 본다. 유미리의 작가적 정체성을 보면 민족과 국가적 차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설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면 오히려 그는 탈구축의 시각을 보유한 소설가로 인정된다. 작가는 동시대의 분위기를 흡입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간 속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게 된다. 작가가 살아가는 사회적 배경, 작가가 바라본 시대정신, 작가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그대로 작품 속에 투영되어 그만의 문학을 존립하도록 한다. 하다면 유미리가 바라본 일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JR 우에노역 공원출구』를 유미리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작품이 민족과 국가적 정체성의 한계에서 벗어나 일본사회의 불평등을 투철히 그려낸 재일한국인 작가의 창작기

1) 유미리, 츠지 히토나리, 『아쿠타가와상 기념 대담』, 『문학계』, 문예춘추, 1997년 3월호, 27쪽.

2)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세계공화국으로』, 도서출판b, 2008, 145쪽.

법을 여실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2. 공간 서사: 이동과 추방

공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들을 포섭하거나 획정하는 장소의 정치적 역학에 대한 관심이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1973년 『사회정의와 도시(Social Justice and the City)』, 1985년 『의식과 도시경험(Consciousness and the Urban Experience)』, 1989년 『도시의 정치경제학(Urban Experience)』,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Condition of Postmodernity)』, 1996년 『정의, 자연, 차이의 지리학(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2000년 『희망의 공간(Spaces of Hope)』 등 저서를 통해 정치경제학적 사유로 도시의 공간적 의미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데이비드 하비의 공간이론을 문학적비평에 대입시키면 도시와 인간, 장소와 존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특정된 도시 혹은 장소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항상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를 부여받고 가치화되며 공간의 특성을 형성한다.

공간이론에 대한 관심은 인문학의 현대성 해독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동반된다. 20세기 70년대 이후, 공간이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글로벌화에 따른 유동적이고 다원적이며 혼잡한 생활공간과 경험영역은 사람들에게 중첩된 공간속에서의 이동을 허용하였다. 재일한국인작가의 텍스트를 살펴보면 공간적 이동, 중첩, 기억 등 공간관계에 대한 서사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소설 텍스트 속의 공간에 대한 은유, 예하면 지역, 도시, 공원, 건축, 변방, 위치 등 도시사회학의 개념과 이동, 퇴거, 추방, 이산, 이민, 망명 등 정치사회학 개념은 소설 속 허구의 공간을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소설에서 이동과 장소는 서로 교착하고 침투하는 관계로 기능한다. 즉 등장인물의 이동에 따라 정지된 상

태의 장소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유동적인 공간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소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에서 ‘우에노’는 이동과 장소의 교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에노’라는 공간적 개념에는 장소, 계층, 신분 등의 내재적 의미가 포함되어있는바 이는 다수와 소수, 보편과 특수,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우에노’는 지역성과 같은 특정된 개념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마찰하고 공존하는 탈중심적 개념으로 볼수 있다. 한 공간에 존재하는 다른 구조 속의 사람들, 여러 겹의 경계가 그들을 갈라놓고 있다. 차이가 차별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노숙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상응한 논리를 상식으로 보편화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소외계층의 아픔에 공감하고 주목해온 유미리는 일본 사회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어왔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 소설의 주인공은 우에노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70대 노인 ‘모리 가즈오’였다. 그는 1933년생으로 일본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군(福島県南相馬郡)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가의 장남이다. 오랫동안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온 모리 가즈오는 1963년 상경 후 도쿄올림픽 경기장 신축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후쿠시마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왔다. 1981년 외아들 모리 고이치가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갑자기 급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는 불운을 맞게 된다. 세월이 흘러 60세를 넘긴 모리 가즈오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한 노후생활을 보내려 했지만 아내 세즈코가 급사하면서 외손녀 마리와 살게 된다. 그후 외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모리 가즈오는 말없이 고향을 떠나 다시 우에노공원으로 향하게 되고 그의 노숙자 생활이 시작된다. 소설은 주인공 모리 가즈오의 공간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고향 후쿠시마에서 홋카이도로, 다시 도쿄로의 상경을 통하여 가즈오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펼쳐진다.

우에노 온사공원(上野恩賜公園)에서 노숙하는 유랑자들 대부분은 동북출신이다. 북국의 현관,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조반선(常磐線)과 도호쿠본선(東北本線) 심야열차를 타고 외지 돈벌이나 단체취직을 위해 동북 지역을 떠나온 젊은이들이

처음 발을 붙인 곳이 바로 우에노역이었다. 우란분재와 연말이 되어 귀향할 때 짊어질수 있을 만큼 짐을 꾸려 열차에 올라타는 곳도 우에노역이었다. 오십년의 세월이 흘러 부모형제를 모두 떠나보내고 돌아가야 할 집도 잃고 이 공원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노숙자들…….3)

일본 동북 지역은 도호쿠(東北)와 홋카이도(北海道) 두 지방을 포함한 농업지대였다. 동북 지역은 일본 국토의 약 40%에 해당되지만 인구 밀도가 낮고 산지가 주를 이루어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개발이 비교적 늦어진 산간지방이다. 따라서 외지로 돈벌이 떠나는 동북 지역의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났고 그들 중 우에노에 자리잡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오십년의 세월’이 지나 우에노공원에서 노숙하는 대부분은 바로 동북 지역을 떠난 그 시절 ‘젊은이’들이었다. 여기서 ‘우에노공원’과 ‘우에노역’은 소설 텍스트를 관통하는 표상적 공간이다. 실재한 장소로서의 ‘우에노공원’과 ‘우에노역’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텍스트 공간에서의 표상은 다의성을 지니고 있다. 존재의 일의성과 표상의 다의성, 이는 소설 텍스트가 행사하는 서술과 묘사의 힘이다. 196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동북 지방을 떠나 상경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우에노역’에 발을 붙이고 타향살이를 시작한다. 우란분재와 연말이 되면 다시 ‘우에노역’에서 열차를 타고 귀향하였다. 50년이 흐른 2010년, 이들은 돌아갈 집도, 지켜야 할 가족도 잃은채 ‘우에노공원’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소설에서 기호화된 ‘우에노공원’은 다의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한때는 동북 지방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깃든 장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터, 일본 경제성장기를 이룬 세대들의 땀과 열정이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다면, 반세기가 흐른 현시점에서는 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한 피난처,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식처, 초고령사회 노숙인들의 은신처 등 하층민의 생존공간으로 바뀌어갔다.

여기서 ‘우에노’라는 텍스트 공간의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3) 유미리, 『JR 우에노역 공원출구』, 동경 : 河出书房新社, 2017, 10쪽.

그날은 11월 20일, 한달 사이에 다섯번 째 ‘산사냥(山狩り)’이 진행되었다. 우에노공원과 주변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즐비했고 천황 일가가 참관하는 전람회며 이벤트가 연달아 열리는 경우도 있다. …(중략)…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의 천막까지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한 도쿄도가 행계(行幸啓)의 기회를 이용하여 우에노공원에 거주하는 오백여 명의 노숙자들을 공원에서 쫓아내려는 의도인 것이다.⁴⁾

‘우에노’, 이 도시에는 일본학사원, 국립서양미술관, 도쿄국립박물관, 도쿄문화회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준비해있는 반면, 우에노공원과 우에노역 지하도에는 거리를 헤매는 유랑자들이 대거 모여 노숙자 집결지를 이루고 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대립되는 두개의 세계, 하나는 일본 문화예술과 학술을 대표하는 관공서와 회관, 다른 하나는 하층민들의 피난처이자 생존공간인 빈민 집결지, 즉 우에노 지역은 현대적 문화시설과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오랫동안 마찰과 충돌을 반복하며 공존해왔다. ‘우에노’라는 도시공간의 의미론적 구성을 보면 전후 문화도시와 변화가로 성장해온 현대적 도시공간의 성격과, 파란색 텐트로 상징되는 빈민굴을 형성한 혼돈의 장소로 이해할수 있다. 이는 일본의 사회계층과 거주공간의 분화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에노’라는 표상적 공간은 역사적 산물이다. 이는 헤이세이 시대 일본의 불평등한 자원분배 제도하에 형성된 위계적 사회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공간의 중첩과 분화, 사회계층의 형성과 대립, 빈부격차의 장기화 등 일본사회의 폐단과 위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시사하였다.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공간적 이동과 추방, 배회 등을 여실히 그려내면서 읽는 이들에게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었다. 헤이세이 중기로부터 일본은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위기는 우선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나타

4) 유미리, 위의 책, 152쪽.

났고 일본의 제한된 자원과 이익 앞에서 생존위기와 경쟁의식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헤이세이 후기에 이르러서는 일본사회의 전반에 걸쳐 대외적 배척, 내부적 분란 등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일본정부는 ‘노숙자 없는 올림픽’을 고민해왔다. 선진적이고 문명한 도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공원과 역 주변에 노숙하는 유랑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도쿄도는 거리 청결, 시민사회 안정, 치안 유지 등을 이유로 ‘노숙자 제로 정책’을 내세웠다. 1940년과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일본정부는 공원과 역 주변에서 노숙자 천막을 강제 퇴거시킨 적이 있다.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들’과 대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은폐하려고 하였다. 바로 공원과 역 주변에 집거해있는 노숙자들, 이는 일본정부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존재들이다. 밝고 깨끗하고 질서 잡힌 도쿄의 이미지에 어둡고 지저분해보이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중첩된다면 ‘일본’의 국가적 표상에 크나큰 타격과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노숙자 퇴거와 추방에 전력을 기울였다. 2013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일본정부는 또다시 노숙자 철거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시찰단이 도쿄를 방문하는 시점에서 공원과 역에는 노숙자 천막 철거 경고장이 날렸다. 우에노공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노숙자 집결지였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도쿄도는 치안상 이유로 각종 행정 시책을 내세웠고 이로 인해 노숙자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올림픽으로 인한 노숙자들의 거주지 박탈, 이 광경은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 소설 전반에 걸쳐 여러 차례 묘사된 부분이다. 여기서 유미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글을 쓴다”라고 유미리는 말한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일본사회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최상위 1%의 부자들이 하위 50%에 속한 사람들보다 거의 2000배나 부유하다.”⁵⁾ 바우만은 이 책에서 상식적인 믿음으로 포장된 지배층의 네가지 거짓말을 폭로한다.⁶⁾ 그중 인간들 간의 불평등은 자연적인 것

이라는 믿음, 이는 빈부격차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수한 불평등 앞에서 바우만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미리는 이상적인 작가인 셈이다.

빈곤층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척과 억압은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켰다. 실제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노숙자들을 공원과 역 주변에서 내쫓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숨어 있을 것을 강요했다는 BBC 보도가 등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2021년 7월 31일 BBC는 ‘도쿄 노숙자의 숨겨진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도쿄 내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을 것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쫓겨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이동했다”⁷⁾라고 보도했다. 도쿄도는 올림픽 경기장과 역 부근의 노숙자 천막을 모두 강제 철거하였고 공원 문을 잠궈 노숙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기존의 올림픽 슬로건에 ‘다 함께(Together)’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다 함께’의 의미는 협동과 단합을 필요로 한 올림픽의 새로운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클 토마셀로(Michael Tomasello), 마르틴 노바크(Martin Nowak), 홀데인(J. B. S. Haldane) 등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류는 강한 협동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올림픽 슬로건에 ‘다 함께’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인류사회가 향후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핵심적 가치를 시사한다. 전 세계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 올림픽, 하지만 ‘다 함께’ 할 대상에 노숙자 혹은 빈곤층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도쿄올림픽은 협력과 공생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던 것일까.

유미리 소설에서 우에노공원은 모두에게 허락된 공간이 아니다. <우에노공원>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나타난다. 공원 관리인, 행인들에게 우에노공

5) 지그문트 바우만,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안규남 역, 동녘, 2019, 18쪽.

6) 위의 책, 66~79쪽 참조.

7) <https://www.bbc.com/japanese/video-58021551>.

원은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주인공을 포함한 공원 주변을 배회하는 노숙자들에게 우에노공원은 엄격한 규제와 질서가 존재하는 닫힌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는 사회적 혹은 역사적 담론이 〈우에노〉 도시공간에 미친 엄중하고 심각한 영향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코로나로 인해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면서 실직자와 노숙자가 날로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일본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가 오늘날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역시 일본정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기억의 재구성: 상기와 치유

소설 텍스트가 보여주는 기억의 재구성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동기에 따라 나열된 기억들의 조합과 변형의 산물이다.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언급된 ‘기억’에 관한 논의는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엘리자베스 로프투스(Elizabeth F. Loftus), 에드워드 호프먼(Edward Hoffman) 등 학자들의 탐구에 의해 점차 기억이론 체계를 형성하였다. 소설 속 기억은 시간의 재구성에 따라 등장인물의 과거를 현재로 환원하는 작용을 한다. 유미리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과거 처절했던 기억에 대한 상기를 통하여 현재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우선 소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우에노공원에서 주인공 모리와 함께 노숙하는 ‘시게’는 종종 공포와 슬픔을 억누르며 도쿄 대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미군에 의한 도쿄 대공습은 쇼와 20년 3월 10일 심야 0시 8분부터 시작되었어요. 300대 폭격기 대부대였다고 해요. B-29폭격기가 초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소이탄 1700톤을 인구밀집 지역인 시타마치(下町)에 투하했어요. 북풍이 세차게 몰아

치는 밤이었죠. 순식간에 화염은 쓰나미처럼 시가지를 덮쳤어요.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은 언문교(言問橋)였어요. 스미다(隅田) 강 양안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도망치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 리어카며 짐수레에 짐재산이며 노인을 앉히고 달아나는 사람, 그때 아사쿠사(淺草) 방면으로부터 맹렬한 불길의 덮쳐오며 그곳을 집어삼켜버렸지요. 사람들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다리를 건너려 했고 언문교 위는 발 디딜 곳도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시체가 쌓여갔어요. 양안의 스미다공원(隅田公園)에 임시 토장한 시체 7000구, 우에노공원에 운반해온 시체 7800구, 불과 두 시간 동안에 10여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어요. 하지만 도내에는 공립 도쿄 대공습 전쟁재해 기념관이 한군데도 없어요.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세운 평화공원도 없다는 거예요.⁸⁾

이는 ‘시게’가 도쿄 대공습을 상기하는 장면이다. 1945년 3월 10일, 미국은 일본 무력화와 전쟁 종결을 이유로 도쿄 시타마치 주변 시가지에 대규모의 야간 저고도 소이탄 공격을 퍼부었다. ‘쇼와 20년 3월 10일’, ‘심야 0시 8분’, ‘300대 폭격기’, ‘소이탄 1700톤’, ‘시체 7000구’, ‘시체 7800구’, ‘10여만 명의 목숨’ 등 구체적인 시간과 숫자는 도쿄 대공습에 대한 시게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보여준다. 불바다가 되어버린 시타마치, 언문교 위에 불타버린 시체더미, 스미다공원과 우에노공원에 매장된 시체, 그날의 참상은 시게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겨주었다. 종전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당시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 우에노공원에서 시게는 종종 그날의 참황을 상기하면서 괴로움과 울분을 토로한다. 시게의 기억은 당시 공습 피해자 혹은 체험자들의 트라우마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도쿄 대공습은 일본의 군 시설과 군수 산업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지만 당시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의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단일 공습에 의한 희생자 수가 사상 최대라는 통계가 나온 도쿄 대공습은 사망자 11만 5천여 명, 공습 피해자 310여만 명, 피해

8) 유미리, 『JR 우에노역 공원출구』, 동경 : 河出书房新社, 2017, 46~47쪽.

주택 85만 채를 기록하고 있다.⁹⁾ 그럼에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도쿄 대공습 피해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 그후 반세기가 지난 2007년, 공습희생자유족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를 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그들의 상고를 기각해 전면 패소가 확정되었다. 일본 대법원은 자국의 공습 피해자들에게 이차적인 상처를 안겨준 셈이다.

도쿄 대공습은 존재하는 역사사실이고 기억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지금까지 공립 도쿄 대공습 전쟁재해 기념관이 세워지지 않았다. 참담했던 이 역사적 사건은 당시 피해자와 체험자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헤겔은 《역사철학강의》에서 역사는 〈일어난 일〉을 의미함과 동시에 〈일어난 일의 이야기〉도 의미한다고 지적한바 있다.¹⁰⁾ 여기서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의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사실과 기억 속의 역사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은 그에 대한 상기에 비해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따라서 역사적 기억은 당연히 회고적이고 사후적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상기의 관계는 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역설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회고적 혹은 사후적이라는 것은 기억의 대상인 사건이 이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건에 대한 사후적 기억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상상을 기초로 하여 대상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픽션과도 차이가 있다. 즉 논픽션도 아니고 픽션도 아닌 제3의 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소설 속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 및 상기의 특이성이 있다. 소설 텍스트는 기억 혹은 기억이 되어버린 표상을 통하여 상처와 이픔을 지닌 등장인물을 치유하는 작용을 한다.

전쟁이 끝난 해, 12살이었다. 전쟁에 패했다는 슬픔이나 비참함보다도, 우선 먼저 먹고 살아야 하는 일, 먹여 살려야 하는 일을 생각해야 했다. 어린 애 한 명 먹여 살리는 일도 힘든데 아래로 7명의 동생이 있었다.¹¹⁾

9) 奥住善重, 早乙女勝元, 『도쿄를 폭격하라-작전임무 보고서는 말한다』, 동경 : 三省堂, 1990년, 57쪽.

10) 헤겔, 長谷川宏역, 『역사철학강의』 상권, 동경 : 岩波문고, 1994, 113쪽.

전후의 일본은 이미 사회통제 능력을 잃었고 전쟁 난민과 고아들이 길거리를 메우는 참담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전패국 서민인 모리 가즈오에게 있어서 나라의 패망에 따른 ‘슬픔이나 비참함’보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대기폭의 생존문제였다. 당시 12살 소년은 장남으로서 일곱 명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여있었다. 1945년의 일본은 도쿄 대공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로 인해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일본 패망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응당 치루어야 할 대가였다. 전쟁과 학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히로히토(裕仁) 쇼와 천황과 당시 내각, 군부였다. 하지만 종전 직전과 전후 일본 패망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소설에서 보여지다시피 당시 일본 민중들은 나라가 패망한 ‘슬픔이나 비참함’보다도 가족의 생계 걱정에 급급했다. 이는 일본 천황과 내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기억과 상기는 현실사회에 투영되면서 ‘시게’가 몸을 숨기고 있는 장소, 우에노공원을 다시 조명한다. 노숙자 시게는 도쿄 대공습에 의해 가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우에노공원에 갇힌 지난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시게와 모리 가즈오의 대화를 살펴보면, 항상 시게가 모리에게 우에노공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중 참담했던 전쟁의 기억에 대한 상기는 현실의 고뇌와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시게가 종종 대공습의 공포와 두려움을 상기한다는 것은 현재 직면한 막막함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치유일지도 모른다. 기억은 현실생활의 곤혹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시게의 내적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다음, 소설은 죽음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유미리 소설에서 ‘죽음’은 키워드 중 하나다. 유미리가 ‘죽음’을 묘사하는 기법은 특이하다. 고독한 타자의 삶을 살아왔던 유미리는 테마와 창작기법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작품에서 ‘죽음’에 대한 은유를 통하여 죽음과 삶의 상징계를 담아냈다. 『JR 우에노

11) 유미리, 『JR 우에노역 공원출구』, 동경 : 河出书房新社, 2017, 21쪽.

역 공원 출구』에도 ‘죽음’을 묘사한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천막의 천장 비닐을 적시었다. 빗방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가 떨어지고 있다. 삶의 무게인듯, 시간의 무게인듯, 규칙적으로 떨어진다. 비가 내리는 밤에는 빗소리가 귀 주변을 맴돌아 잠들수 없었다. 불면, 그리고 영면, 죽음에 의해 갈라지는 것과 생에 의해 갈아지는 것, 생에 의해 이어지는 것과 죽음에 의해 이어지는 것, 바로 비, 비, 비, 비.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날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¹²⁾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젊은 시절 떠나보낸 아들을 상기하며 밤을 지새우는 모리 가즈오, 이는 그의 불면의 밤을 묘사한 대목이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비’로 은유된 고통의 시간들, 주인공 모리 가즈오는 그 속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떠올린다. 생과 사에 의해 갈라지는 것도, 생과 사에 의해 이어지는 것도, 삶과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흡사했다. 그 속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모리 가즈오의 슬픔이 스며들어있다. 생명의 연속과 시간의 흐름은 비가 내리듯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한다. ‘빗줄기’로 은유된 모리 가즈오와 아들의 ‘끈’은 하늘과 땅이 이어져있듯이,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있듯이, 삶과 죽음이 이어져있듯이 연결되어있다. ‘빗방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리는 ‘비’는 삶의 무게도, 시간의 무게도 담담히 짊어져야만 했던 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 하다.

죽으면, 죽은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수 있거나 언제든지 만져보거나 느낄 수 있다고 여겼다. 죽으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 순간, 살아가는 의미와 죽어가는 의미가 보일거라고 생각했다.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아오듯이 선명하게.¹³⁾

12) 유미리,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 동경 : 河出书房新社, 2017, 37쪽.

13) 위의 책, 109쪽.

모리 가즈오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그 순간’의 의미를 ‘죽으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죽으면’, 이들과도 아내와도 부모와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지척에서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죽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의미와 죽어가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오랫동안 드리운 안개가 걷히듯이, 새로운 날이 밝아 오듯이 선명하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이 대목은 죽음을 앞둔 모리 가즈오가 담담히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죽음과 맞닿은 삶의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모리 가즈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가즈오는 알고 있었다. 이는 노숙자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이지만 단순한 슬픔이나 처량함을 넘어서 생의 철학적 사유를 제시한 부분이다. 여기서 짐멜의 ‘생의 자기초월’이나 베르그송의 ‘생의 약동(élan vital)’과 같은 명제가 내포한 생의 철학(Lebensphilosophie)의 함의를 되새기게 된다. 이 대목은 모든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겨주었다.

유미리의 희곡 『물 속의 친구에게』, 소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생명』, 『영혼』, 『자살의 나라』 등은 모두 생과 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어린 시절 몇 번의 자살 미수 경험이 있는 유미리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을지도 모른다. 유미리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빈곤, 차별, 이별, 폭력 등 키워드는 작가의 체험과 주변환경에 의한 흑색 상상력이 체현된 부분이다. 그러나 유미리 소설이 묘사한 죽음은 항상 삶에 대한 열망과 동경이 내포되어있다. 때로는 처절한 듯, 때로는 담담한 듯, 때로는 강인한 듯, 때로는 해탈한 듯 보이는 죽음에 대한 은유는 생과 사에 대한 작가의 ‘깨달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소설은 시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에 나타난 ‘시간’은 보편적 의미를 지닌 시간관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탈구축한 리좀(rhizome)¹⁴⁾

형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인생은 이어져간다. 일력에는 어제와 오늘, 내일의 구분이 확실히 그어져 있지만, 인생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누구나 오직 혼자서 끌어안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시간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죽어간다.¹⁵⁾

소설은 시간을 생명의 시간과 물리적 시간으로 나뉜다. 인생의 과거, 현재와 미래는 지표적인 연속을 의미하는 제한된 생명의 시간에 속하고, 일력으로 보는 어제, 오늘과 내일은 비지표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무한한 물리적 시간에 속한다. 이는 마치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에서 언급한 시간의 초월과 통합을 시사하는 듯 보인다.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통합을 거쳐 여러 가지 <반복>적인 형태로 보여지지만 다만 이 과정은 극히 다른 양태로 나타난다. 현재는 반복자이며 과거는 반복 그 자체지만, 그러나 미래는 반복되는 것이다.”¹⁶⁾ 인간은 누구나 ‘오늘’과 ‘현재’를 원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틀을 부단히 생성하고 초월하며 다시 통합하고 해체한다. 소설은 초월과 통합을 반복하는 시간에 대한 은유를 통하여 포스트모던한 세계를 그려보았다. 인간은 연속과 단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방대한 시간’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소설의 이야기 시간은 모리 가즈오의 기억과 상기에 따라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있다.

하늘의 풍경은 시작도 마무리도 없는 듯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오늘은 오늘 그대로, 더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시간속에 숨어있는 것은 오늘보다도 더 긴 과거……과거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듯한 느낌도 들고, 귀를 닫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¹⁷⁾

14) 질 들뢰즈, 펠렉스 가타리, 宇野邦一 역, 『천의 고원』, 동경: 河出書房新社, 1994, 20쪽.

15) 유미리,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 동경: 河出書房新社, 2017, 172쪽.

16) 질 들뢰즈, 財津理 역, 『차이와 반복』, 동경: 河出書房新社, 1992, 153쪽.

17) 유미리, 앞의 책, 2017, 133쪽.

소설은 현존하는 시간과 과거,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여준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보다 더 긴 ‘과거’를 은폐하고 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늘’에 머문채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즉 현존하는 ‘오늘’이야말로 주인공이 능동적인 자아적 의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과거와 미래가 모두 포섭된 ‘시간’인 셈이다. 현존하는 ‘오늘’은 과거로의 회귀와 미래로의 지향을 모두 가능케 하는 현재인 동시에 유기적인 과거와 미래의 통합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횡단하는 주인공의 내재적 시간의식을 상징한다. 현존하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리 가즈오는 ‘과거의 기척’에 응답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며, 더는 ‘내일’을 향해 꿈을 꾸지 않는다.

소설에서 이 대목은 노숙자들의 하루를 보여주는 서사방식으로 등장한다. 우에노공원의 구석진 곳마다 세워진 작은 움막에서 노숙자들은 ‘시작도 마무리도 없는 듯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의 풍경을 보며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나날을 보낸다. 이는 리즘의 개념을 연상시키는 구절이다. “리즘은 시작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¹⁸⁾ 리즘은 이분법적 대립에 의해 구축된 서열과 격차, 중심과 주변의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수평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관계들에 주목하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된 형태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해체하고 재형성한다. 소설에서 보여준 시작도 마무리도 없는 자연풍경에 대한 묘사는 유미리의 유목민적 글쓰기의 발현이다. 이는 바흐친의 대화원리, 데리다의 차연, 들뢰즈의 리즘,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이 지향하는 텍스트의 시공간 개념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해석을 연상시킨다. 유미리의 소설 『풀 하우스』, 『물고기가 꾸 꿈』, 『가족 시네마』, 『골드러시』, 『영혼』, 『생명』 등은 유목민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일본사회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위계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유미리는 소설에서 윤리적 회의주의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전통적인 가족 윤리관, 혼인제도, 사회 도덕 질서에 대한 질의와 의구심을 드러낸다. 이는

18) 질 들뢰즈·펠렉스 가타리, 宇野邦一 역, 『천의 고원』, 동경 : 河出書房新社, 1994, 55쪽.

라캉의 ‘분리의 윤리’를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유미리의 소설은 전통적인 가족윤리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가족분리 또는 해체를 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가족 혹은 혼인에 대한 동경과 지향이 엿보인다.

텍스트가 보여준 기억의 재구성은 작가의 창작 사유이며 내적 갈등의 체현이다. 작가 유미리의 직간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글쓰기의 요구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은유된 시간과 기억의 중첩은 유미리만의 창작 특성을 보여준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모리 가즈오의 기억의 재구성에 따라 스토리텔링이 전개되며 흩어진 과거의 시간과 불안정한 현재의 순간을 같은 평면 위에 놓고 묘사하였다. 또한 무의식의 범주에 속하는 ‘시간’과 의식의 범주에 속하는 ‘기억’을 적당히 중첩시키면서 유미리 소설이 갖고 있는 비평론적 의지를 시사하였다.

4. 나오며

유미리의 초기 작품은 1920년대 일본문단에 정착된 사소설의 형식을 답습한 부분이 많았다. 재일 디아스포라문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유미리의 초기 작품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가족에 의한 상처를 다룬 사소설과 에세이가 주를 이루었다. 소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유미리가 사소설 창작기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작품이라고 보아진다. 초기 작품에서 보여진 가족붕괴에 의한 정신적 트라우마, 학교생활에서 느낀 차별과 편견, 그 과정에서 반복된 자살충동 등 주제는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는 유미리가 일본사회의 하층민과 이주민 등 소외된 자들의 관점에서 도쿄 우에노 지역을 바라본 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전근대와 근대, 현대를 지나오면서 우에노 지역은 여러 차례 공간적 의미가 재편된 도시에 속한다. 우에노는 카오스적 공간과 기억을 형성한 일본의 대표적 도시로 상징되며 소설 역시 이 점에 주목하여 ‘우에노공원’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무대로 정한 것으로 보아진다. 헤이세이 시대로 들어서면서

유미리는 점차 일본사회의 빈부격차와 계급모순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유미리의 전반 작품을 살펴보면 민족정체성 혹은 국가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낸 텍스트는 거의 없고, 개체적 인간의 고뇌와 상처에 주목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본사회의 타자로서의 삶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던 유미리는 점차 개인의 경험을 탈구축한 하나의 집단 혹은 한 부류의 인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사회에서 결코 중심 혹은 주류집단에 속할수 없는 소외된 자들, 갈 곳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였고 그 대표적 작품으로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를 예로 들 수 있다.

헤이세이 중기에 이르러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변화되면서 노인층의 빈곤, 파산, 자살 등 일련의 문제가 일본사회를 뒤흔들었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가 2020년 ‘내셔널 북 어워드’ 번역문학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다시 받게 된 이유 역시 빈부격차와 고령화 사회의 위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모리 가즈오와 우에노공원의 노숙자들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된 노인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현실적 모습을 대변한다. 특히 소설은 일본의 경제성장기를 이루어낸 한 세대가 노년에 이르러 빈곤, 노숙, 파산, 자살 등 불행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담담히 그려냄으로써 짙은 사색의 여운을 남겼다. 우에노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진 소외된 하층민들의 이야기는 일본사회라는 공간적 의미를 벗어나 양극화와 고령화 위기를 맞이한(혹은 맞이하게 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다. 민족과 국적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이 마주한 보편적 차원의 고뇌와 불안에 대한 서사구조, 이는 소설 『JR 우에노역 공원 출구』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금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짐작된다.

■ 참고문헌

- 유미리, 츠지 히토나리, 『아쿠타가와상 기념 대담』, 『문학계』, 문예춘추, 1997년 3월호.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세계공화국으로』, 도서출판b, 2008.
유미리, 『JR 우에노역 공원출구』, 河出书房新社, 2017.
지그문트 바우만, 안규남 역,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동녘, 2019.
奥住善重, 早乙女勝元, 『도쿄를 폭격하라-작전임무 보고서는 말한다』,三省堂, 1990.
헤겔, 長谷川宏 역, 『역사철학강의』 상편, 岩波文庫, 1994.
질 들뢰즈, 財津理 역, 『차이와 반복』, 河出書房新社, 1992.
_____, 펠렉스 가타리, 宇野邦一 역, 『천의 고원』, 河出書房新社, 1994.

柳美里小説『JR上野駅公園口』に表われる他者性

－空間と記憶理論に基づいて－

朴銀姬*・毕娇娇**

2020年、柳美里の長編小説『JR上野駅公園口』は第71回全米図書賞(翻訳文学部門)を受賞した。小説は柳美里が日本社会から排除された庶民や移住民たちの視点に基づいて東京上野地域を描いた作品であるということに興味深い。柳美里の作家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を見れば、民族や国家という次元から自由ではないが、むしろこの点から脱構築の視線を有している小説家であると評価される。『JR上野駅公園口』はグローバルイシューである貧富格差や高齢化社会の暗黒面を描いた。特に小説は日本の経済成長を牽引してきた世代が老年期に入って貧困、路上生活、破産、自殺などの不幸な人生を過ごすしかない現実を描いて多くの読者の視線を集めた。

本論は、平成時代の日本文学に影響を及ぼした『JR上野駅公園口』に表われる他者性に注目し、空間叙事や記憶の再構成、二つの側面からテキスト分析を行おうとする。民族や国籍を超えて人間として直面した普遍的な悩みや不安に対する物語、これこそ小説が6年の歳月が経ったにもかかわらず、再び全世界的な注目を浴びる最も重要な理由である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 柳美里、『JR上野駅公園口』、空間理論、記憶理論、他者性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18일

* Professor of China Ludong University Schoo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Yanbian University Korean And Chinese Language Institute

** Master Degree Candidate of China Ludong University Schoo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